

# 한국 활자인쇄술의 발명과 전파

〈고려의 금속활자 발명 : 인류문화의 진보에 대한 그 역할과 영향〉

## 손보기

단국대학교 석좌 교수

### 암각예술에서 컴퓨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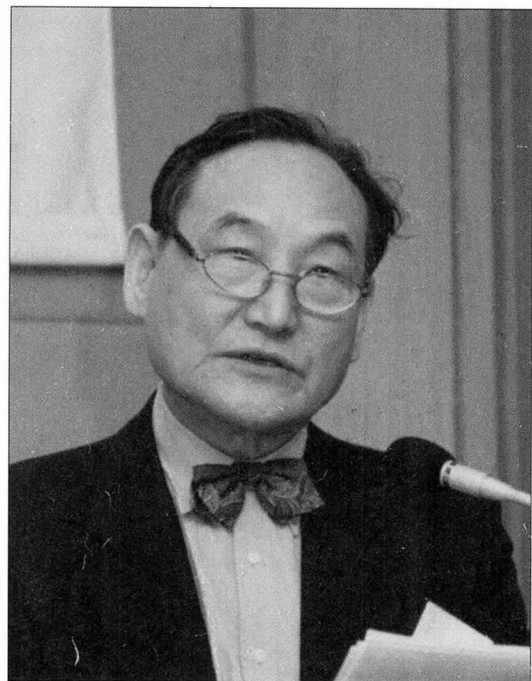
인쇄술은 현대 사회를 촉발시킨 인류계몽의 측면에서 주요 발명품의 하나다. 활자 인쇄술은 사회교육과 근대과학의 발전을 촉진했고, 규범과 가치를 전달하고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을 가져왔다. 타자기의 발명, 책과 신문, 텔레비전과 컴퓨터의 발명으로 이제 세계 내외 정보에 대한 소격감은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인쇄술은 컴퓨터와 우주 커뮤니케이션으로 확장되고 있다.

암각예술로부터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넘어온 분수령은 언어의 출현 — 글자의 발명 — 종이의 발명 — 목판인쇄술의 발명 — 활자인쇄술의 발명 — 타자기의 발명 — 컴퓨터의 발명 등이다. 추상적인 형태를 가진 글자의 발명은 커뮤니케이션과 교

육에 있어서 혁명적인 과정이었다. 등사기술이나 탁본기술의 발달로 기록전파가 가능해졌고 탁본전파는 종이인쇄의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된다.

인쇄술은 문서를 대량 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되었다. 목판인쇄술은 나무패기, 나무다듬기, 판목만들기, 새기기, 인쇄하기 등 모든 작업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목판인쇄에는 종이와 잉크생산 기술 역시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야 한다. 중국은 일찍 종이를 발명하고 한국이 뒤를 따랐으며 일본도 한국의 도움 아래 양질의 종이를 생산하게 되었다. 한국의 닥종이는 닥나무와 산닥나무의 좋은 섬유로 만들어졌으며 우수한 품질과 내구성으로 명성이 높았다. 닥종이는 한국계 중국인 고선지 장군에 의해 타

**“청동활자의 혁신은 고려인들에 의해 이뤄졌다. 활자인쇄술의 전파에도 한국인들의 공헌이 부분적으로 있었다. 실용적인 금속활자는 타르비츠를 거쳐 뉘른베르크, 스트라스부르크, 마인츠 등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손보기 교수

## 행사

### ‘동서 고인쇄문화 국제심포지엄’ 개최

동서양 저명학자 참여... 서울과 청주시 번갈아 열려

유네스코 독일위원회와 한국위원회, 청주시가 주최한 ‘동서 고인쇄문화 국제심포지엄’이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2일까지 서울(세브란스 빌딩)과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번갈아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인쇄술과 관련된 동서양의 저명한 학자들이 대거 참여, 동서 인쇄술의 기원과 상호영향 동서양 인쇄술의 특징과 사회문화적 배경 등에 관한 다양한 시각과 견해를 발표, 토의하였다.

한국측에서는 손보기·천혜봉·최정호·박성래·한영우·윤병태·박문열 교수가 발표했고, 독일에서는 유네스코 독일위원회 사무차장 볼프강 로이터씨, 마인츠대학 구텐베르크 연구소장 스테판 뢰셀교수, 독일국립도서관의 요아킴 리어스박사가 각각 구텐베르크 인쇄술의 특징과 서적 보존기술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프랑스에서는 파리 소르본느대학의 원로석학 앙리 장 마르탱 교수와 리용 인쇄박물관의 엘런 마살 박사가 서구와 동양의 인쇄문화 비교와 20세기 인쇄술의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중국의 중국 과학

사연구소 판지싱 교수, 일본의 구보타 국제협회 구보타 테르조박사, 규슈 산교대학 아키히로 기노시타 교수, 후지 테크노사의 게이이치 이시가와씨가 각각 자국의 입장에서 인쇄발달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심포지엄의 가장 큰 쟁점은 인쇄술의 기원을 밝히는 부분이다. 한국측 학자들은 현존하는 최고의 인쇄물(목판인쇄물:석가탑 무구정광대다라니경, 금속활자 인쇄물:백운화상초록 불조지지심체요절)을 들어 우리 인쇄문화의 우수성을 주장했고, 인쇄술을 소위 4대 발명의 하나로 단정하며 최고의 금속활자본이 자국의 《어시책》이라고 주장하는 중국학자, 그리고 백만담 다라니경이 세계 최고의 인쇄물이라고 주장하는 일본학자간의 의견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났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참여 학자들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지지심체요절》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록하도록 추진키로 합의했다.

— 마정미 기자

슈켄트에서 생산하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중동지역으로 전파되었다.

고려의 목판인쇄술은 8세기초 불교의 포교를 목적으로 불교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발달되었다. 11세기와 13세기에는 고려대장경이라는 거대한 인쇄사업이 추진되었다. 대장경판은 양면으로 새겼으며 무려 16만 2천 절면에 달한다.

### 고려시대에 시작된 활자인쇄술

청동활자를 주조하는 혁신을 이룩한 이들은 바로 고려인들이었다. 청동활자는 판목을 만들 필요도 없으며, 산림을 훼손할 필요도 없다. 또한 금속활자는 오래가고, 필요할 때마다 녹여 몇번이고 재주조할 수 있다. 《고금상정예문(古今詳定禮文)》을 28부만 출판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고려의 인쇄술은 활자인쇄술로 이행해갔다. 현재 남아 있는 고려의 청동활자는 청주 고인쇄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그것은 ‘복(復) 활자로서, 도굴꾼이 고려 왕릉에서 도굴하여 일본의 골동품상인 아카보시에게 넘어간 것을 다시 1913년 이왕가박물관(李王家博物館)에서 사들인 것이다. 활자인쇄술은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이었으며, 교정이 쉬워 책의 신속한 생산에 공헌했다. 또한 활자인쇄술에 적합한 떡, 즉 기름떡 또는 밀랍떡을 발명함으로써 목판인쇄에 사용했던 물먹을 대체했다.

한국의 인쇄술에 있어 또하나의 특징은 목판과 활자를 동시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활자인쇄술이 수요가 적거나 전문적이고 고급인 책에 대해서는 편리한 반면, 목판인쇄술은 판목이 보존되는 한 반복해서 인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많은 수요에 적합했던 탓이다. 금속이 대중적이지 못했던 이유는 금속이 정부의 통제하에 있어 무기와 동전 주조에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세종의 통치기간 동안 출간된 책들 중 114종은 1종당 100~300부를 금속활자로 인쇄하였으며, 194종은 목판으로 300~1000부 정도 인쇄되었다. 종이생산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은 수도의 8명을 비롯하여 전국에 787명이었으며, 먹생산 또한 전국적이었다. 활자인쇄를 수행하는 장인들은 200명 가까이 전문화되어 있었다.

활자인쇄술이 다른 나라로 전파되는 데에는 한국인들의 공헌이 부분적으로 있었다. 활자인쇄술의 아이디어는 중국으로부터 전파되었으나, 한국이 혁신한 실용적인 금속활자는 타르비츠를 거쳐 뉘른베르크, 스트라스부르크, 마인츠 등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건이 유럽의 금속활자 주조와 납-안티몬 합금, 독일의 압착식 인쇄기의 발달을 촉진한 것이다. ❖